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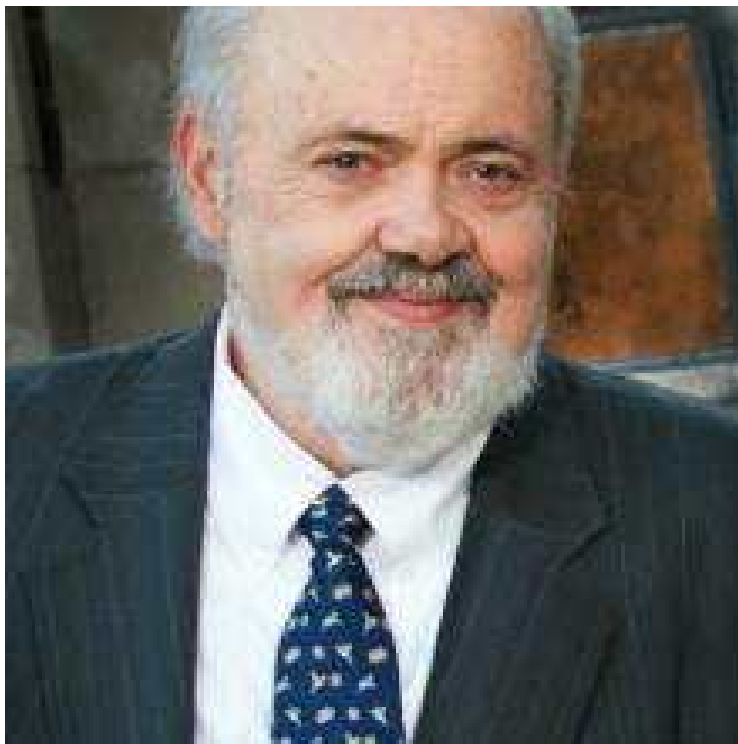
간디의 재치

인도 출신인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의
일화입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를 않는
식민지 인도 출신인 학생
간디를 아니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피터스 교수 옆자리에
점심을 먹으러 앉았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이보게,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일은 없다네."

간디가
재치 있게 응답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복수심에
약이 오른 교수는
다음 시험 때에
간디를 애먹이려고 했으나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자 간디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길을 걷다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네.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간디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다.
한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다.
둘 중 하나만 차지할 수 있다면,
자넨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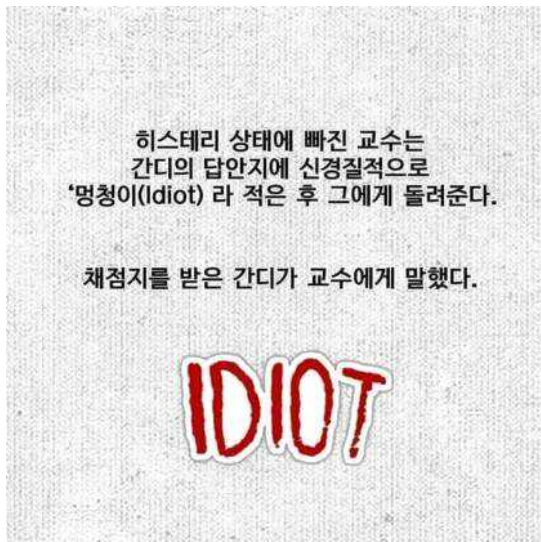


교수가
혀를 차면서 빈정댔다.
"쫓쫓, 만일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간디가 간단히
대꾸했습니다.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히스테리의 상태에
빠진 교수는 간디의
시험지에
'멍청이'
라고 써서 돌려
주었습니다.



간디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멍청이')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적혀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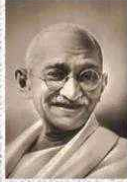
간디의 재치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상심하지요.
이것은 대단한
어리석음입니다.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상대의
어리석음을 연민하면
될 뿐입니다.

간디는 현명한 재치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간디의 명언



"진정한 힘이란 물리적 수단 속에 있지 않다.
쥘 수 없는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투쟁에 있어서는 진리를 따르고,
생명,인격,재산에 대한 폭력은 삼간다."

?쉽진 않겠지만
간디의 말처럼
누군가의 말에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